

아이디어가 '지나친' 책제목

책에 대해 아직도 '고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고전적'이란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여하한 형태의 지적 결과물에 대한 신성시합, 거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보호심리 등이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책도독은 아량 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대사회에서 책도 하나의 상품이요, 그것도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내 판매전략을 세워야 하는 기획상품이라는 사실은,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섣뜻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구석이 있다.

일례로, 요즘 서점의 신간도서코너에 눈길을 돌

려보면, 백화점 진열장에 조금도 뒤질 것 없는 현란한 책들의 겉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 화려한 외양에 일조를 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책제목이다. 이는 각종 수필과 시집류일수록 더한데, 한자풍의 고풍스런 제목이나 깔끔한 단문형의 제목이 아직도 책제목의 전형으로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유형으로 묶어낼 수 있는 제목들이 시선을 끈다. 텔레비전의 영향이 크겠지만, 시중에 떠도는 유행어에서부터 감히(?) 책제목으로 등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속어·비어·은어들이 그야말로 '기발한' 형태로 표지에 박혀 있는 것이다.

눈에 띄는 대로 옮겨보면, 왜 단순한 음식이름이 듣는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지 모르겠

지만 '짬뽕'이 인기라면 책제목에도 재빨리 등장한다. '사람은 죽어서 기저귀를 남'기고 '죽어서도 웃는 돼지가 더 비싸다'고 한다. 대중가요 제목이 그렇듯이 책제목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길어져간다.

모든 책의 제목이 '고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제목을 대할 때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시의적절하다거나 재치가 돋보일 때 주는 신선함의 차원을 넘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까지 느끼게 할 정도라면 과정된 표현인가. 지나친 제목경쟁에 붙은 가속도가 오히려 상품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세대는 문자세대에서 영상세대가 되리라는 예측에 스스로 그 과도기세대에 속해 있다고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자는, 이전 세대처럼 책에 대한 '엄숙주의'를 고집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권의 책에서 첫페이지 첫줄은 '의미심장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소연 기자

재미있는 책이야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농담」 등으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체코 출신의 망명작가 밀란 쿤데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小説과 우리들의 시대」(책세상, 권오룡 옮김)에서 자기 작품의 번역과 관련, 실망스러웠던 경험을 전하고 있다.

“...1968년과 1969년에 「농담」은 서구의 모든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럴 수가! 프랑스에서는 번역자가 내 스타일을 윤색하여 소설을 새로이 써냈다. 영국에서는 편집자가 사유적인 구절들을 모두 잘라 버리고 음악이론에 대한 장을 없앴으며 각 부들의 순서를 바꿔 소설을 재구성해버렸다. 다른 나라에서는 나는 내 소설을 번역한 사람을 만나 보았다. 그는 체코어라고는 한 마디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번역을 했나요?” 그는 대답했다. “마음으로요.” 그러면서 그는 지갑에서 내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가 하도 정감적이어서 나는 하마터면 마음의 텔레파시만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할 뻔했다. 물론 사정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그는 프랑스어 판을 놓고 중역을 했던 것이다...”

한 친구의 조언으로 쿤데라는 번역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

의 하나로 자기가 작품에서 자주 쓰는 단어를 하나하나 정의내려 자기만의 사전을 만든다. 흥미로운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소설가(와 그의 생애) 어떤 사람이 소설가 카렐 차페크에게 당신은 왜 시를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왜냐하면 나 자신에 대해 말하기 싫으니까요”라는 것이었다. 헤르만 브로흐는 자기 자신과 무질과 카프카에 대해 “우리 세 사람에게는 진정한 일대기가 없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의 생애에 특기할 만한 사건들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굳이 들추어지고 공개되어 자서전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나보코프는 “나는 위대한 작가들의 값진 생애에 내 코를 빠뜨리고 싶지 않다. 어떠한 전기작가도 내 사생활의 장막을 걷어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 포크너는 “역사에 의해 지워지고 없어지는 인간으로서 인쇄된 책 이외에는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게 되기”를 바랬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인쇄된 책만이 남기를 바랬다는 것은 미완성의 원고나 일기, 편지 등도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점이다). 널리 알려진 비유를 들면, 소설가는 자신의 생애라는 집을 헐어 그 벽돌로 소설이라

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설가의 일대기를 쓰는 전기작가는 소설가가 세운 것을 허무는 것이고, 소설가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들의 작업은 소설의 가치도, 의미도 밝혀주지 못하며, 단지 몇개의 벽돌만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카프카가 요제프 K보다 관심을 끌게 되는 순간부터 카프카의 사후의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 내 소설에 있어 인물들의 행동은 대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루어지지만 나는 내 소설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는다. 만들어진 단어가 이 말은 너무 젊고(1918년에 만들어졌다), 역사적인 뿌리가 없으며 아름답지도 않다. 그리고 그것은 그 말로 지칭되는 대상의 너무 젊고(시간의 시련을 겪지 않은) 인위적인 성격을 나타내지도 못한다. 이처럼 단단하지 못한 단어 위에 억지로 나라는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소설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 작품인물들의 나라를 지칭하기 위해 나는 언제나 보헤미아라는 낱어를 쓴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만(내 소설을 번역한 사람들은 종종 이것에 대해 반발하곤 했다), 그러나 시

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직 그것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이다.

▲음란함 외국어로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외국어의 악센트를 통해 발음되는 음란한 말은 다만 우습기만 할 뿐이다. 외국 여자와 더불어 음란해지기의 어려움. 음란함 : 우리를 조국에 비 끌어매는 가장 깊은 뿌리.

▲소설 작가가 실험적 자아(인물)를 통해 실존의 중대한 주제의 끝까지 탐사하는 위대한 산문의 형식.

▲아름다움(그리고 지식)...예전에 카프카 전문가들은 그네들이 연구하는 작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느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논쟁을 벌였다. 아니다. 희망은 없다.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 삶을 부정하는 이 상황까지도 카프카는 기이한, 까만색의 아름다움으로 발견해낸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간에게 가능한 마지막 승리이다.

▲활자 사람들은 점점 더 작은 활자로 책을 만든다. 나는 문학의 종말을 이렇게 상상해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활자가 조금씩조금씩 작아져서 나중에는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버리는 것.

출판저널

통권 제89호 / 1991년 8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亨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珍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暉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吳
宋相庸	申福龍	權錫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景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純鍾	鄭雲瑛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鄭鍾庫
韓相慶	韓勝憲	許顯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 회원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편대체 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